

광주 백운고가,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철거

급경사·급커브 '마의 도로' 오명...하루 14만대 차량 이동
도심 미관 저해 상권 악영향...도시철도 2호선에 철거 결정

광주광역시 교통의 중심지로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해온 백운고가차도가 4일부터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89년 11월 개통된 지 31년 만이다.

백운광장 일대는 전남 화순과 나주 등 시외에서 광주 시내권을 잇는 제1순환로이자 교통 관문이다.

백운고가차도는 길이 385.8m, 폭 15.5m로 백운동부터 주월동까지 도심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다.

고가차도는 건설 당시 경전선 철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경사와 급커브로 시공하면서 잦은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발생해 '마의 도로'라는 오명을 썼다.

법적으로 규정된 고가 설치 기준은 1차로 폭 3.25m에 곡선반경은 200m, 시속 70km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백운고가는 1차로 폭 3m에 곡선반경 100m, 속도는 시속 40km에 불과했다. 경사도도 규정보다 5%나 높은 6.4%에 달했다.

백운고차로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4만7500여대의 차량이 이동했고, 이 중 5만3000대 가량이 좁고 높게 지어진 백운고가를 이용했다.

출퇴근시간 때면 고가 일대에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어야만 했다.

교통체증 외에 도심미관도 심각하게 저해했다. 주변상권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백운고가가 지어지면서 상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백운광장 일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기만 했다.

보행로도 단절돼 상점엔 손님들의 발길이 뜰 끊겼다. 실제로 백운광장 일대에 호텔 2곳이 있었으나 한곳은 사라지고 한 곳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가던 주민들마저 떠나면서 빈집, 빈점포만 늘어나 남구의 중심지 기능을 상실했다.

주민들은 도심 미관 저해와 상권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백운고가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백운고가 철거가 논의된 건 2005년 무렵부터다. 하지만 예산문제나 대체도로 등에 막히면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백운고가 문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맞물리면서 '철거'로 가닥이 잡혔다.

시는 지난해 예산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남구청사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사업'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를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고가차도 구조물을 철거하고, 2023년까지 도시철도와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백운고가를 도로를 기념하고 안전한 철거를 다짐하기 위

해 철거가 시작되는 6월4일 오후 3시 현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아쉬워 새로운 길을 위하여' 주제로 이용섭 시장,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거기념 테이프커팅, 백운고가 걷기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기념식에 앞서 백운고가차도 철거공사 중에 시민들이 이용할 추가차로 확보, 수목 이식, 지장물 이설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주변 신호체계 주기 변경, 좌회전 허용

등 현장여건과 공사 특성을 고려한 교통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주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고가차도가 철거되고 도시철도2호선과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교통안전, 도심미관 저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기간에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우회도로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신안군 장산-자라 1.63km 연도교' 추진...하의도 '평화의 섬' 연결

6월 중 조달청 입찰, 지역업체 49% 이상 의무 참여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를 연결하는 '자라대교'

신안군 천사대교와 자라대교 개통에 이어 하의도 평화의 섬 연결을 위한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산-자라 연도교'는 해상교량 1.63km와 접속도로 1.24km 등 총 길이 2.87km의 2차로로 설치될 계획

이다. 총 사업비 1514억원(공사비 1321억, 관리비 등 193억)이 투입된다.

이번 공사 추진은 지난해 9월 신안군이 하의도 연결을 위한 교량 가운데 미개통 해상교량 4개소 3.84km 중 전남도가 관리

한 장산-자라 해상교량 1.63km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도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하의도를 연결할 해상교량 4개소 중 장산-자라 지방도사업을 도·시군비로 우선 시행하고, 막금-장산 등 나머지 해상교량 3개소 2.21km는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장산-자라 연도교는 조달청에서 6월 중 입찰공고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장산-자라 연도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섬지역의 식수문제, 전기공급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군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교량계획에 반영했다.

김정환 기자

한빛원전 2호기, 계획예방정비로 발전 중단

연료 교체·설비 개선 통해 안전 확보...8월 중순 가동 재개 전망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3일 오전 10시 한빛2호기(가압경수로형 950MW급)가 24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발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빛본부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원전연료 교체, 정비, 설비개선을 통해 한빛2호기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다.

가동 재개는 원자력위원회의 가동승인을 받아 8월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확진다발 지역의 정비 인력을 다른 지역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투



입일정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이로써 한빛원전 2·3·4·5호기가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을 멈췄고, 1·6호기는 가동 중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

무안군